

# 최경창과 홍랑 연구\*

權純烈\*\*

〈차례〉

- I. 序言
- II. 靈巖에 온 神仙
  - 1. 선계의 지향
  - 2. 고죽으로서의 삶
- III. 사랑의 化身
  - 1. 북방의 선녀
  - 2. 同穴之人
- IV. 結語

## I. 序言

朝鮮朝 중기 穆陵盛世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대표적인 집단은 단연 三唐派 詩人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의 한 사람인 孤竹 崔慶昌(1539, 중종 34~1583, 선조 16)은 청백리 가문을 이은 맑고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에 대한 뛰어난 재주를 보여 9세에 「登南岳」이라는 작품을 지어 높은 기상을 보였다.

고죽은 옥봉 백광훈과 함께 靑蓮 李後白, 松川 梁應鼎, 思菴 朴淳 등의 문하에 출입했다. 그 과정에서 높은 학문과 뛰어난 문장을 터득하였고 인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정도 받았다. 약관이 안 되어 李珣, 宋翼弼, 崔岏 등과 더불어 무이동에서 수창하니 세상에서 8문장이라 불렸다. 그리고 또 鄭澈과 徐益 등의 명류와 계사를 위해 모여 삼청동에 놀러가니, 사람들이 또 28수의 모임이라고 불렀다.<sup>1)</sup> 고죽은 이렇게 많은 명사들과 친교를 맺었으며, 특히 옥봉과는 평생 神交를 맺고 지냈다. 문학적 평가와는 달리 그의 정치적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경륜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정적들과의 갈등 속에서 터덕거리야만 했다.

고죽의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洪原의 관기인 洪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고죽이 洪랑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573(癸酉)년 北道評事로 나갔을 때였다. 고죽에게 있어서 洪랑과의 만남은 빛이며 또한 어둠이기도 했다. 11년 동안 고죽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짐은 한 인간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여준 만남과 이별의 모습은 세인의 부러움을 넘어 인간 순수의 극치였다. 그들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양반과 官妓라고 하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용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사랑을 가능케 했으며, 그들이 이룩한 사랑이 지닌 현재적 의미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 靈巖에 온 神仙

### 1. 선계의 지향

고죽은 守仁의 아들로 영암에서 태어났다. 靈巖은 고을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 영암 고을의 鎭山인 月出山은 그 자태도 아름답지만 서기가 어린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金克己는 영암을 “하늘엔 새벽 놀이 퍼지니 붉게 섞여 윤택하고, 땅엔 저녁 아지랑이 뿔어대니 푸른 색 진하게 떠오른다.”<sup>2)</sup>

1) 朴世采, 『孤竹詩集後敘』, 『孤竹集』參照.

고 표현하고 있다. 그야말로 신선이 영약을 달이며 거주할 것 같은 공간이 바로 영암이다. 이런 환경적 분위기와 잘 어울린 인물이 다름 아닌 고죽이라고 할 수 있다.

不見崔仙已七年에	최신선을 보지 않은 지 칠 년만에
相思頭髮各皤然이라	생각하다 귀밑머리 각기 희어져 버렸네.
華賤半濕坡山雨하니	화려한 종이가 절반이나 파주의 비에 젖어
一首新詩送太顛이라	한 수의 새 시 태전을 통해 보냈네.

鵝溪 李山海가 고죽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가 李山海의 文集인 『鵝溪遺稿』에는 없고 『孤竹集』에만 남아 있다.<sup>3)</sup> 그렇게 된 사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할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시를 주고받을 당시의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다.<sup>4)</sup> 그런데 東人과 西人의 투쟁 속에서 노선이 다르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결국 인간적 관계도 멀어진 것이다. 양인의 교유는 7년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수창한 시를 스님을 통해서 보낸 것 같다. 이 시에서 鵝溪는 고죽을 ‘崔仙’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것은 고죽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과 처신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鵝溪의 命名은 일순간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이미 당시 일반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선의 평을 들은 고죽이 어떻게 해서 영암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출생지와 유년기의 생활 공간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영암에서 생활했던 것은 분명하다.

2) 天潑晨霞錯紅潤 地噓夕靄供綠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五. 靈巖郡條.

3) 崔慶昌, 『孤竹集』 七言絕句 參照.

4) 공이 평소 당시 재상인 이산해와 서로 좋아하였는데, 후에 그가 마음가짐을 공평하게 하지 않음을 보고 인하여 왕래를 끊어버렸다(公素與時宰李山海 相驩 後見其秉心不公 因絕往還). 朴世采, 앞의 글 참조.

경술년 공이 14세에 칭런 이공이 포의로 금릉의 박산에서 강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배웠다. 이공이 매양 '절세기보'라고 칭찬을 했다. 같은 때에 고죽 최경창과 사문 윤기와 사문 임희와 남계 김윤이 있어 함께 탁마하여 도움을 주는 유익함이 있었다.<sup>5)</sup>

옥봉의 연보이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고죽이 그의 나이 12세인 庚戌(1550)년에 玉峰 白光勳 등과 더불어 강진에 있는 靑蓮 李後白에게 나아가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죽은 수학기를 영암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고죽은 영암에 살면서 인근 지역에 있던 玉峰 白光勳 등과 친교를 맺고 지내면서 이후 장성해서는 영암의 명문으로 알려진 林九齡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고죽은 영암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또 거문고와 피리에도 뛰어났었다. 젊어서 영암에 살고 있었는데, 왜구가 갑자기 침입함을 당해 배를 타고 피하니, 적이 급하게 포위했다. 그때에 달빛은 대낮과 같고 바다의 물결은 일지 않았다. 공이 가지고 있던 옥피리를 가지고 낭랑하게 한 곡조 부니, 소리가 더욱 맑고 높았다. 도적의 무리가 그것을 듣고 모두 고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해, 놀라서 서로 돌아보며 말하길, 이 포위 가운데 반드시 신인이 있다 하고 마침내 한 쪽을 푸니, 공이 탈출해 돌아올 수 있었다.<sup>6)</sup>

영암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다. 고죽은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이며, 세속인과는 다른 면이 많았다. 신선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거문고와 피리 같은 악기에도 능했다. 그가 옥피리 하나로 왜적을 물리친 이 이야기는 작은 사건도 아니고, 우연한 일은 더욱 아니다. 이 이야기는 고죽의 신비스런 면모를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배경

5) 庚戌 公十四歲 聞靑蓮李公 以布衣 講學于金陵之博山 就而學焉 李公 每以絕世奇寶 稱之 一時 有崔孤竹慶昌 尹斯文箕 林斯文蒼 金南溪胤 并有偲切薰陶之益. 『玉峰集』 年譜 參照.

6) 又妙琴笛 少時寓居靈岩 值倭寇猝至 乘舟以避 賊圍之急 時月光如晝 海波不動 公取 所藏玉簫 朗吹一闋 聲更清越 賊衆聞之 皆懷思還鄉 瞿然相顧曰 此圍中 必有神人 遂 解一面 公得脫歸. 林世采, 앞의 글 參照.

을 이루고 있는 고요한 달밤과 피리 소리는 신선의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고죽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달밤과 피리도 그의 선계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李山海가 고죽을 崔仙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三清露氣濕珠宮하고	삼청의 이슬 기운이 주궁을 적시고
鳳管徘徊月在空이라	봉피리 들고 배회하는데 달은 공중에 있네.
苑路祇今香輦絶하고	정원의 길에 이제 임금의 수레가 끊어졌는데
碧桃紅杏自春風이라	푸른 복숭아 붉은 살구만 봄바람에 피어 있네.
	‘天壇’ <sup>7)</sup>

고죽은 1576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다. 사행 중에 지은 ‘天壇’이란 제목의 두 번째 시이다. 천단에서 느낀 도가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삼청, 주궁, 봉피리, 달 이런 단어들은 도가적 분위기가 짙은 시어들이다. 그때 秦씨라는 도사가 이 시를 크게 칭찬하면서 通州 河清關까지 따라오면서 자기의 책 앞에다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고죽은 그에게 ‘朝天宮’이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이 시가 중원에 알려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죽이 명나라 사행길에 지은 시 중에서 ‘過楊照廟有感’에 대해 許筠은 당나라 시인의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평하고 있다.<sup>8)</sup>

## 2. 고죽으로서의 삶

‘孤竹’의 의미는 최경창의 삶의 자세와 직결되어 있다. 최경창의 본관인 海州의 古名이기도 한 고죽은 흔히 伯夷와 叔齊를 일컫는다. 주지하다시피 백이와 숙제는 周나라의 곡식을 거부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節義의 대명사이다. 때문에 조선조의 많은 선비들에게 더 없는 존경을 받았고 師

7) 崔慶昌, 앞의 책, 七言絶句.

8) 許筠, 『鶴山樵談』 參照.

表가 되었던 것이다. 최경창의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준 고매한 인품과 절의가 삶의 지표이며 원동력이기도 했다.

首陽山에	수양산에
孤竹節이여	고죽의 절개여.
綠葉三冬雪이요	삼동의 눈 속에 잎은 푸르고
青天一片月이라	푸른 하늘에 한 조각달이 뜨네.
西方美人歸去來하니	서쪽에서 미인이 돌아오니
山可摧兮竹可折이라	산도 꺾을 만하고 대도 꺾을 만하네.
	‘贈崔孤竹’ <sup>9)</sup>

楊士彦(1517~1584)이 고죽에게 준 시이다. 양사언은 특히 서예에 뛰어나 安平大君, 金絿, 韓濩와 함께 조선전기 4대서가로 일컬어졌다. 한시는 작위성이 없고 자연스러워 天衣無縫이라는 평이 있었다. 양사언과 고죽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서로가 잘 알지 않고서는 이런 정도의 시를 쓸 수는 없다. 고죽의 의미와 기개를 잘 드러낸 시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고사를 원용해 내용 파악이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이 시는 널리 人口에 膾炙되었다고 한다. 수양산의 고죽은 孤竹君의 두 아들인 伯夷와 叔齊를 말한다. 백이와 숙제는 지조가 높고 청렴한 성인으로 유가에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다. 고죽을 그러한 인물에 비유한 것이다. 고죽의 절개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 삼동의 눈 속에도 잎이 푸르고, 그의 기상은 뛰어나 산도 꺾을 만하고 대도 꺾을 만한 정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고죽의 기상에 대해 극도로 예찬한 것이다. 마지막 행의 ‘可’가 『孤竹集』에는 ‘亦’으로 되어 있다.<sup>10)</sup>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면이 많다.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深淺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당

9) 楊士彦, 『蓬萊詩集』, 卷之一.

10) 崔慶昌, 『孤竹集』, 三五七言 參照.

대의 평가와 후세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죽의 경우도 명암이 크게 엇갈림을 볼 수 있다.

유성룡이 아뢰었다. “최경창은 사람됨이 검속이 없어 국휼을 당했을 때 창기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대간이 논핵했습니다. 그런데 서인들은 그와 지우간이기 때문에 비호하고 대간들은 일시에 모두 함경도사로 의망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분하고 억울하게 여겼습니다.”<sup>11)</sup>

고죽에 대한 유성룡의 진언이다. 고죽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동인과 서인의 견해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인간적 해석을 하는 측과 정치적 해석을 한 측의 대립인 것이다. 그러나 고죽은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을 영유할 수가 없었다. 봉당의 대립은 극도의 대립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西人은 점차 세력을 잃고 있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가 처한 입장이 그만의 한가로운 삶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松江이나 龜峰처럼 정치 전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문무의 경륜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했다. 비록 임금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 수령이나 변방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의 삶은 고단했고 경륜의 장은 요원했다.

孤竹無枝葉하여	외로운 대가 가지와 잎이 없어
寄生海上山이라	바닷가 산에 기생하고 있네.
年年霜雪埋하니	해마다 서리와 눈에 묻히니
崖傾根未安이라	비탈이 기울어져 뿌리가 편치 못하네.
豈是材可用이리오	어찌 이 재목이 쓸 만한 곳이 있어서 그러리오
所貴能傲寒이라	귀한 바는 능히 추위를 무시하기 때문이네.
鳳鳥日已遠하고	봉새는 날로 더욱 멀어지고
舊實日已殘이라	옛 열매는 날로 더욱 없어지네.

11) 成龍曰 崔慶昌 爲人無檢束 當國恤時 畜娼妓爲妾 當時臺諫論之 西人等以其知友而庇之 臺諫一時並擬 咸鏡都事 人心皆憤鬱矣. 『宣祖修正實錄』, 12년 6월 1일.

仙人從空下하여	선인이 공중에서 내려와
見之爲悲嘆이라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네.
斲作綠玉杖하여	푸른 옥 지팡이를 깎아 만들어
携去朝雲關이라	대궐로 가져가고 싶네.
雲關萬里阻하니	대궐이 만리에 막혀 있어
恐此中路還이라	이것이 중도에서 되돌아올까 두렵네.

‘感遇十首寄鄭季涵’<sup>12)</sup>

이 시는 고죽이 자신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시이다. 고죽에게 있어서 송강은 시적 교유가 비교적 많았던 사람이다. 이 시는 ‘感遇十首寄鄭季涵(만난 감회 10수를 정계함에게 주다)’의 시 중 7번째 것이다.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송강 정철을 만나 한번에 10수의 시를 준 것이다. 그 동안 겪었던 정치적 고뇌와 갈등, 그리고 소망과 염려를 담아 송강에게 준 것이다. 이러한 고죽의 태도는 옥봉을 대했을 때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옥봉은 竹馬故友라 그에게 보낸 시는 인간적 그리움의 정서가 짙게 베어 있다.<sup>13)</sup> 그런데 송강에게 보낸 시는 이와 전혀 다르다. 고죽에게 있어서 송강은 同道之人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강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정치적 수완을 터득했고 서인의 영수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그래서 고죽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시를 송강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서 가지도 잎도 없이 서리와 눈 속에 바닷가에 붙어살고 있는 외로운 대나무는 분명 최경창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그에게는 이러한 대나무가 추운 겨울 속에 살지만 능히 추위를 오롯이 이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삶의 가치를 지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 시는 곳곳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의 삶을 드러낸다.<sup>14)</sup> 그리고 이 시에는 그의 소망이 강하게 피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푸른 지팡이를 깎아 대궐로 가져가고 싶다는 것은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희망한 것이다. 고죽이 비록 문무를 겸

12) 崔慶昌, 앞의 책, 五言古詩.

13) 拙稿, 「孤竹 崔慶昌 研究」, 『古詩歌研究』 第9輯, 161쪽 참조.

14) 金鍾西,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222쪽 參照.



비한 강인한 기상의 소유자이며 선조 임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드리워져 있는 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고죽의 호방한 성품과 탈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의 하나가 蓀谷 李達(1539~1612)과의 일화이다. 손곡은 홍주의 官妓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서자로 자랐다. 許筠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손곡은 비록 생활 형편은 어려웠으나 고죽과 옥봉보다는 詩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 고죽과 옥봉은 일찍 세상을 떠나 그들의 재주를 다 펴지 못했던 것에 비해 그는 약 30년을 더 살았고, 특히 만년에는 문장이 크게 진보하여 一家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이런 高評에는 허균의 호의적인 시각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시라고 하는 예술이 만년에 대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손곡이 고죽에게 보낸 시를 살펴보자.

商胡賣錦江南市하니 호상이 강남 저지에서 비단을 파는데  
朝日照之生紫煙이라 아침해가 비추니 자색 연기가 일어나네.  
佳人正欲作裙帶하니 가인이 정히 치마 띠를 만들고자 하나  
手探粧奩無直錢이라 손으로 화장대를 더듬어도 값 줄 돈이 없네.  
‘錦帶曲贈孤竹使君’<sup>15)</sup>

이 ‘錦帶曲贈孤竹使君(금대곡으로 고죽 군수에게 주다)’이라는 시는 고죽이 영광 군수로 있을 때 손곡이 영광을 방문해 보낸 것이다. 놀다 보니 노자가 다해 사랑하는 기생에게 자주빚 비단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 돈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노자가 대했다는 내용은 없다. 호상이 파는 비단이 아름답다는 것과 기생이 그 비단을 사서 치마의 띠를 만들고자 하는데 값을 치를 돈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는 드러내지 않고 고죽에게 그 값을 구걸한 것이다. 이에 고죽이 이르기를 손곡의 시는 한 글자에 천금씩이나 값이 나가니 어찌 감히 비용을 아끼겠

15) 李 達, 『蓀谷詩集』, 卷之六.

느냐고 하면서 글자 하나 하나마다 각각 세 필씩을 쳐서 그가 구하던 것을 대어 주었다. 그가 손곡의 재주를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sup>16)</sup> 손곡은 여기저기 詩友를 찾아다니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이때의 사건도 그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이 일화를 통해 詩友에 대한 고죽의 배려가 어떠했는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고죽은 매우 다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다. 글씨에도 매우 뛰어났지만 특히 활 솜씨는 神技에 가까웠다.

그가 북막을 도울 때에 장군 김우서가 또한 활 잘 쏘는 명예를 가지고 함께 재주를 비교하기로 약속하고 각기 49화살을 맞추었다. 최후에 우서가 다시 과녁을 맞추니, 공이 급히 불러 말하길, “장군이 졌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정곡을 맞추었다. 선조가 일찍이 문무의 선비를 모아 놓고 재주를 시험했다. 활 잘 쏘는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공을 꺼려했다. 공이 웃으며 말하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은 피곤하다.”라고 하고, 이에 화살 하나를 잘못 쏘았다. 활 잘 쏘는 자가 곧 장원하여 당상관에 오르고, 공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호피와 말의 하사를 받았다.<sup>17)</sup>

김우서 장군과의 일화만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죽이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활 솜씨는 이의 심장을 나누고, 기마술은 새의 왼쪽을 쫓을 정도라고 하니 시적 재능뿐만 아니라 기상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죽은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위와의 갈등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和光同塵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신선으로만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16) 李家源, 허경진 역, 『玉溜山莊詩話』, 延世大學校出版部, 1980, 375~376쪽 참조.

17) 其佐北幕 軍帥金禹瑞 亦以射名 約與較藝 各中四十九矢 最後禹瑞復中侯 公遽號曰 將軍負矣 遂中鵠 宣廟嘗會文武士試才 有一善射者 心憚公 公笑曰無憂 吾今日病矣 乃虛發一矢 善射者 卽以魁陞緋 公居其次 受皐比廐馬之賜焉. (朴世采, 『孤竹詩集後敘』, 『孤竹集』)

門前車馬散如烟하니 문 앞의 거마가 연기처럼 흩어지니  
 相國繁華未百年이라 정승의 화려한 생활 백년도 못 가네.  
 深巷寥寥過寒食하니 궁벽한 마을에서 쓸쓸히 한식을 보내는데  
 茱萸花發古牆邊이라 수유꽃만 옛 담장가에 피었네.  
 ‘大隱巖’<sup>18)</sup>

大隱巖은 서울 인왕산 아래에 있던 바위이다. 이곳에 南袞의 집이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시는 남곤을 풍자한 시로 볼 수 있다. 남곤은 서예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관운도 비교적 순탄해 대제학,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己卯(1519)年 沈貞 등과 己卯土禍를 일으켜 趙光祖, 金淨 등 사림파를 숙청하였다. 살아서는 온갖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사림의 탄핵을 받아 文景이라는 시호와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이처럼 남곤은 사후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起句와 承句에서 변화하던 옛날을 상기시킨 뒤, 轉句와 結句에서 현재의 쓸쓸한 정경을 묘사하여 절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수유꽃만이 활짝 피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쓸쓸함을 배가시킨다. 특히 ‘相國繁華未百年’이란 말속에는 남곤의 삶에 대한 풍자가 배어 있어 허균은 “풍자가 뼈에 사무친다.”라고 하였다.<sup>19)</sup> 이렇게 고죽은 현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심사도 시로 승화하였다.

山翁得乳虎하여 산옹이 어린 호랑이를 얻어  
 養之置中園이라 기르며 정원 가운데에 두었네.  
 馴擾日已長하니 길들여 날로 더욱 성장하니  
 狎近如家豚이라 귀여워하기를 자식과 같이 했네.  
 妻言虎性惡하니 아내가 말하길 호랑이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니  
 翁怒愛愈敦이라 늙은이는 화를 내며 사랑하기를 더욱 돈독히 했네.  
 畢竟噬翁死하니 필경에는 늙은이를 물어 죽게 하니  
 寧復顧前恩이라 어찌 다시 전날의 은혜를 돌아볼 것인가.  
 人皆笑翁愚나 사람들은 모두 늙은이가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18) 崔慶昌, 앞의 책, 七言絶句.

19) 강석중 외, 『조선시대의 한시3』, 문헌과해석사, 1999, 236쪽 참조.

我獨爲翁窻이라 나는 홀로 늙은이를 위해 원통하게 여겼네.  
'養虎詞'<sup>20)</sup>

고죽이 李潑(1554~1589)을 풍자해 지었다는 시이다. 이발은 1573년 알성문과에 장원한 후 비교적 순탄한 벼슬길을 살았다. 조광조의 至治主義를 이념으로 삼아 士論을 주도하기도 했다. 동인의 거두로서 정철의 처벌에 강경 입장을 취하여 李珥, 成渾 등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특히 율곡과는 관계가 좋았다. 그런데 고죽은 그가 비뚤어지고 믿기 어려운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양호사를 지어 풍자한 것이다. 그후 율곡이 이발의 일로 곤욕을 당했다. 이발이 또 역적의 옥사에 연루되어 죽으니 사람들이 고죽의 선견지명에 감복하였다.<sup>21)</sup>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孤竹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 무관심하거나 초연했던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의 시대에 應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諷刺詩를 보면 그의 기개가 어떠한지, 그의 결백증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성격적인 측면 역시 孤竹이 권력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한 이유일 것이다.<sup>22)</sup>

### Ⅲ. 사랑의 化身

#### 1. 북방의 선녀

홍량은 북방의 선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홍량에게는 선녀의 면면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점에서 그렇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춘추시대 秦穆公

20) 崔慶昌, 앞의 책, 五言古詩.

21) 初李先生 際遇宣廟 時輩如李潑者 多浮慕尊事之 公知其險巧難信 作養虎詞以寓諷 比公歿 而先生果被敲撼 潑又累死逆獄 人服公先見焉. 朴世采, 앞의 글, 『孤竹集』 參照.

22) 拙稿. 앞의 글, 158쪽.

의 딸 弄玉과 비슷하다. 농옥은 통소를 잘 부는 蕭史에게 시집가서 역시 통소를 익혔는데, 통소로 봉 우는소리를 내면 봉이 날아와 집 위에 앉았다. 후에 농옥은 봉을, 소사는 용을 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선녀의 자질을 가진 홍랑이 어떤 연유로 官妓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개 관기의 딸이 다시 관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홍랑도 이런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홍랑과 고죽의 만남은 양인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고죽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러므로 홍랑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그러나 홍랑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더했다고 할 수 있다. 홍랑은 고죽을 만나 관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다. 그리고 자식까지 두었다. 양인이 처음 만났을 때 고죽의 나이는 35세였고, 홍랑의 나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죽보다는 훨씬 아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만력 계유 가을에 내가 북도평사로 막부에 나아갔더니, 홍랑이 따라와 막중에 있었다. 다음해 봄 내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니, 홍랑이 따라와 쌍성에 이르러 이별하고 돌아가다가, 함관령에 이르러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심하게 내리는 때를 만나, 마침내 노래 한 수를 지어 나에게 보냈다.<sup>23)</sup>

홍랑은 홍원의 관기였다. 그런데 고죽이 있는 鏡城에까지 와서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 경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관기인 홍랑이 지역 경계를 이탈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홍랑은 법령을 어기고 지역 경계를 넘어 고죽을 따라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홍랑이 홍원 수령의 허락도 없이 지역 경계를 이탈했다면 상당한 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홍원 수령의 묵인과 고죽의 배경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23) 萬曆癸酉秋 余以北道評事赴幕 洪娘隨在幕中 翌年春 余歸京師 洪娘追及雙城而別 還到咸關嶺 值日昏雨暗 乃作歌一章 以寄余 其後音問相絕。(孤竹關係 筆寫本 資料, 崔治萬 發行 『孤竹集』 參照)

있다. 고죽이 쓴 예주 군수에게 편지를 보내 악록화를 꾸짖지 말라는 ‘簡藥珠倅勿責萇綠華’라는 시가 바로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점을 볼 때 홍량과 고죽 두 사람 다 이미 사랑에 빠졌고, 주위의 시선이나 사회적 법령을 의식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승리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별의 시련이 닥쳐온 것이다. 그때 홍량은 시조 한 수를 지어 고죽에게 보냈다.

뫼버들 굴헛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더  
 자시는 창밧긔 심겨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님긔 나가든 나린가도 너기쇼셔

‘뫼버들가’<sup>25)</sup>

홍량이 고죽을 따라와 쌍성에서 이별하고 돌아가다가 함관령에서 보낸 시조이다. 홍량은 자신의 애원을 담아 시조와 함께 버들을 꺾어 고죽에게 보낸 것이다. 이 시조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정서는 이별의 슬픔이나 안타까움뿐만이 아니다. 더 절실한 애원이 담겨 있다. 이별을 당해 버들을 꺾어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적 행위이다.<sup>26)</sup> 당나라 때부터 벗과 헤어질 때는 버들을 꺾어 이별의 정표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므로 버들을 꺾는다는 말에는 이미 이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버들은 생명력이 강해 꺾어준 가치를 심어두면 쉽게 뿌리를 내리고 새파란 새잎을 피운다. 이처럼 자신들의 사랑도 시들지 말자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柳’의 중국음은 머무른다는 의미의 ‘溜’와 발음이 똑같아 가지 말고 머물러 달라는 중의성을 내포하고 있다.<sup>27)</sup> 홍량이 고죽에게 준 이 시조에도 그런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의 버들은 단순히 이별의 정표만은 아닌 것 같다. 이 버들은 그러한 상

24) 崔慶昌, 앞의 책, 七言絶句 參照.

25) 시조에 제목이 없어 임의로 제목을 붙였음.

26) 拙稿, 앞의 글, 165~166쪽.

27)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6, 91쪽 참조.

정적 의미를 넘어 홍랑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 홍랑은 이별을 당해 버들에 그 자신을 실어 고죽에게 보낸 것이다.

홍랑은 이 시조에 많은 상징을 담았다. 창은 방 안에서 밖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통로이다. 그리고 안에서 밖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 홍랑은 자신이 보낸 버들을 심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공간이 침실과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사랑이 드나드는 창외 상징성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구의 이면에는 고죽으로 하여금 홍랑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여기서 홍랑은 자신의 모습을 밤비에 난 새잎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버드나무 잎은 結緣의 媒體이다. 제주도 무속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고려 왕건과 장화왕후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밤비는 비가 지니는 풍요와 축복의 이미지가 강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밤비를 통해서 태어난 새잎은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홍랑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새잎으로 轉身하여 고죽과의 사랑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별이란 만남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sup>28)</sup> 사랑에 빠진 홍랑의 태도는 보다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에 소식이 끊겼더니, 올해년에 내가 병이 나 오래 낫지 않아 봄부터 겨울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다. 홍랑이 그것을 듣고 즉일로 출발해 무릇 칠주야만에 이미 서울에 당도했다. 이때에 양계의 금령이 있었고 또 국상을 만나, 소상이 비록 이미 지났으나, 평시와는 같지 않았다.<sup>29)</sup>

고죽이 북도평사로 있다가 한양으로 돌아온 후, 乙亥(1575)년에는 병이 깊었다. 심리적 갈등과 홍랑에 대한 그리움이 상승작용을 한 결과일 것이다. 봄부터 겨울까지 병석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홍랑이 그 소식을 접한 것이다. 홍랑이 즉일로 七晝夜를 달려온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28) 拙稿, 앞의 글, 166쪽.

29) 歲乙亥 余疾病沈綿 自春徂冬 未離床褥 洪娘聞之 卽日發行 凡七晝夜 已到京城 時有兩界之禁 且遭國恤 練雖已過 非如平日. (앞의 孤竹關係 筆寫本 參照)

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관기였고, 더구나 당시에는 兩界의 禁畵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홍량은 적어도 두 가지 위법을 하고 있다. 하나는 관기의 신분으로 지역 경계를 이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兩界의 禁畵을 어긴 것이다. 여기서 양계란 평안도 지방인 서북면과 함경도 지방인 동북면을 총칭한 것이다. 당시에는 영토의 확보를 위해서 양계에 사는 백성들은 혜택도 있었지만 內地人과는 결혼할 수도 없었고, 내왕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홍량은 국상 중인데도 이런 금령을 어기고 한양까지 온 것이다.<sup>30)</sup>

## 2. 同穴之人

고죽과 홍량의 사이는 부부라기보다는 戀人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비록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관계는 이미 연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으로 比翼鳥 같고 連理枝 같은 존재였다. 比翼鳥는 상상의 새로 암수가 모두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가 의가 좋음’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連理枝는 서로 다른 두 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고죽과 홍량의 사이야말로 그런 존재로 비유할 수 있다.<sup>31)</sup> 홍량의 보여준 행위가 그것을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고죽이 죽은 후, 스스로 치장을 얹고 파주 묘소를 지켰다. 임진왜란 때 고죽의 시고를 잃어지고 피난하여 병화를 모면케 하였다. 홍량이 죽자 고죽의 묘 아래 묻어 주었다.<sup>32)</sup>

30) 拙稿, 앞의 글, 167~168쪽 참조.

31) 拙稿, 앞의 글, 167쪽.

32) 孤竹歿後 自毀其容 守墓於坡州 壬辰之亂 負孤竹詩稿 得免兵火 及死 葬孤竹墓下. (南鶴鳴, 『晦隱集』 參照)



侍墓를 하는 것은 시신이 있는 곳에 죽은 사람의 혼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상을 당하면 成墳을 한 다음 그 서쪽에 廬幕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거처했다. 이러한 생활은 여간한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묘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가장 훌륭한 효성으로 평가되었다. 洪娘이 孤竹 사후에 보여준 모습도 그러한 의미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옛말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신을 즐겁게 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했다. 洪娘은 이미 나이가 들었다. 더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줄 입이 없는 상황에 치장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洪娘의 모습은 단순한 애정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지켰다는 것도 매우 심상치 않은 일이다. 죽음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龍蛇의 난리 속에 孤竹의 遺稿를 짚어지고 피난하여 병화를 모면케 했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孤竹集』이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洪娘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직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홍랑의 사후 자손들이 孤竹의 무덤 바로 밑에 장사를 지내 준 것도 바로 그녀의 희생적인 행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 IV. 結語

孤竹 崔慶昌은 청백리 가문을 이은 맑고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에 대한 뛰어난 재주를 보여 9세에 「登南岳」이라는 작품을 지어 세인을 놀라게 했다. 고죽은 약관이 못되어 李珣, 宋翼弼, 崔岵 등과 더불어 8문장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그리고 鄭澈, 徐益 등과 모이니 사람들이 28수의 모임이라고 불렀다.

33) 拙稿, 앞의 글, 171쪽 參照.

고죽의 고향인 靈巖은 신선들이 영약을 달이며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환경적 분위기와 잘 어울린 인물이 바로 고죽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정치적 노선이 달랐던 李山海도 고죽을 ‘崔仙’이라고 일컫고 있다. 고죽은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이며, 세속인과는 다른 면이 많았었다. 신선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거문고와 피리 같은 악기에도 능했다. 그가 옥피리 하나로 왜적을 물리친 이야기는 고죽이 지닌 신선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고죽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달밤과 피리도 그의 선계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중국 사행길에 지는 ‘天壇’이나 ‘朝天宮’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고죽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의 지향점은 언제나 ‘孤竹’으로서의 삶이었다. 그러나 고죽의 의미인 고매한 인품과 절의로만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현실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가 남근을 풍자한 ‘大隱巖’과 이발을 풍자한 ‘養虎詞’이다. 특히 ‘大隱巖’에 대해서는 허균은 “풍자가 뼈에 사무친다.”라고 하였다.

홍량이 고죽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고죽이 1573(癸酉)년 北道評事로 왔을 때였다. 그런데 고죽이 서울로 떠나게 되자 홍량은 따라와 쌍성에서 이별하고 돌아가다가 함관령에서 시조와 함께 버들을 꺾어 보냈다. 홍량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새잎으로 轉身하여 고죽과의 사랑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그후 한양으로 돌아온 고죽이 병이 깊다는 소식을 접한 홍량은 즉일로 한양으로 七晝夜를 달려왔다. 이것은 엄청난 위법이었다. 하나는 관기의 신분으로 지역 경계를 이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兩界의 禁令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시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홍량의 모습은 춘추시대 秦穆公의 딸 弄玉과 비슷하다. 그리고 고죽 사후에 시묘를 하고 전란 속에 고죽의 遺稿를 지킨 모습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 준 임에 대한 헌신의 극치였다. 이처럼 홍량에게 있어서 고죽과의 이별이란 만남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 홍량은 그야말로 이별과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 진정한 선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자료

白光勳, 『玉峰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李 達, 『蓀谷集』  
楊士彦, 『蓬萊詩集』  
李山海, 『鵝溪遺稿』  
崔慶昌, 『孤竹集』  
許 筠, 『鶴山樵談』  
『朝鮮王朝實錄』

2. 著書

강석중 외, 『조선시대의 한시3』, 문헌과해석사, 1999.  
李家源, 허경진 역, 『玉溜山莊詩話』, 延世大學校出版部, 1980.  
李炳漢,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文學과知性社, 1992.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6.  
崔慶昌, 權純烈 역, 『孤竹集』, 영암문화원, 2002.

3. 論文

權純烈, 「孤竹 崔慶昌 研究」, 『古詩歌研究』 第9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2.  
金鍾西,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成均館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03.  
朴秉益, 「16세기 三唐詩人의 唐詩風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04.  
安炳鶴, 「三唐派 詩世界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8.  
崔明煥, 「孤竹崔慶昌論」, 東國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1.

<투고일 : 2005.6.27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 Abstract

## A Study on the Choi Gyong-chang and Hong Rang

Kwon, Soon-yoel

Go Juk Choi Gyong-chang who is from honest and noble family named Chongbaekri, had a honest and decent mind. He had outstanding talents in poetry writing, and many people was surprised when he wrote a poem titled <Deung-nam-ak> when he was nine. Go Juk was called one of the Eight Writers including Lee Ei, Song Ik-pil, and Choi Lip when he was less than 20. And he was considered as a member of the 28 literary stars including Jung Chol and Seo Ik.

Young-am, Go Juk's hometown, is known as a place where hermits lived. He is well harmonized with the place. Lee San-hae whose political ideology was different from that of Go Juk called him as Choisun. Go Juk had many talents and was good at playing musical instruments such as a Gumungo and a pipe. The story he defeated invaders with a pipe shows his talent definitely. 'Chondan' and 'Jochongung' he wrote on the way of China as an embassy have to be understood in such context.

Go Juk pursued noble personality and fidelity for his whole life. He had to. So, he often paid direct attention to reality when he wrote 'Dae-eun-am' and 'Yang-ho-sa'. Specifically, Huh Gyun said that his parody in Dae-eun-am shows bitter grudge against society.

Hong Rang first met Go Juk in 1573. At that time Go Juk was an officer titled Buk-do-pyong-sa. Suddenly, he left for Hanyang and

Hong Rang sent willow leaves to him with her poem describing her sorrow on separation and love. Hong Rang wanted to keep her love with Go Juk when she was reborn as a willow leave even though now she was separated from him. Then Go Juk in Hanyang was unwell because of serious disease. Hearing the news on his sickness, she went to Hanyang and it took for 7 days. Like this, Hong Rang pioneered her way, escaping out of the shackles of the time. After Go Juk died, she kept his tomb and a manuscript titled <Go-juk-jib> during the battle. Separation from Go Juk is another meeting to her. She overcame separation and death and won a true love.

**Key words : Go Juk, Best, 28 stars, Hong Rang, angel, willow leaves, separation and death**

K C I